


 오늘의
게시판

빛고을 E&C 아카데미 오전 10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행사
12일
 ▲빛고을 여성회합 한마당 축제=오전 10시 광주시 염주체육관. 5개구 1천200명이 참가 예정.

▶빛고을 E&C 아카데미=오전 10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안성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강사로 '내부의 경제여건 변화와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로 강연.

▶책 나눔이 독서회 작가 초청 강연회=오후 1시 광주 송우초도서관 강당. '아주 특별한 우리형', '봄어빵의 꿈' 저작자 토론회와 함께 책을 주제로 강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청립 7주년 기념행사=오후 5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제 1회 아름다운 광주공원 만들기 주민대학

=오후 4시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강당. 장희천 광주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다함께 둘러 공원 한바퀴, 광주공원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연.

▶중소기업 CEO를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 설명회 및 디자인 경영 세미나=오전 10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8호.

▶지역혁신센터(RIC) 개소식=오후 3시 조선대첨단캠퍼스.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건립 기공식=오후 4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테크노파크 인근 첨단산업단지 연구시설단지 내 현장.

▶제 26회 진도학당 군민 교양강좌=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현 상지대 총장)이 강사로 나서 '친환경 농업을 통한 한국 농업의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강연.

▶21C 담양포럼=오후 3시30분 담양군 문화회

관 대공연장, 정병조 한국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강연.

▶도립어린이 국악단 창단공연=12일(수) 오후 7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남도소리 상설무대 '춤과 병창의 만남'=12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놀이페 신명과 함께하는 풍물페 '꿈을 접는 제비들'·창단 연주회=13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이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13일(목) 오후 1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서예협회 광주시지회 전=15일까지. 자마갤러리, 광주북구청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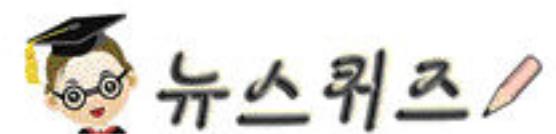
▶조선왕실의 가마전=30일까지 목포 국립해

양 유물전시관.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마전시.
 ▲원극화 미술전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생명전' =31일까지 일곡 갤러리. 백담 무전 스님 작품 전시.

▶대학미전=26일까지 롯데화랑.

▶올해의 작가 '윤예근·정승규'전=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운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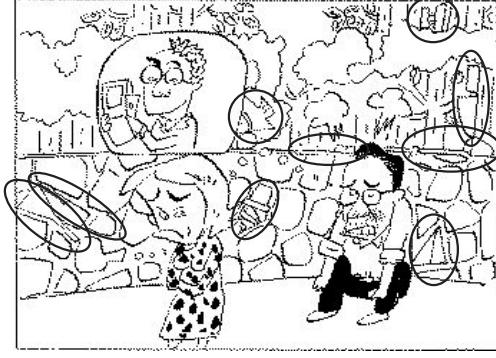
20. 북한이 지난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7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치성이 걸렸고,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7기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대포동 2호
- ② 패트리어트
- ③ 나이키
- ④ 광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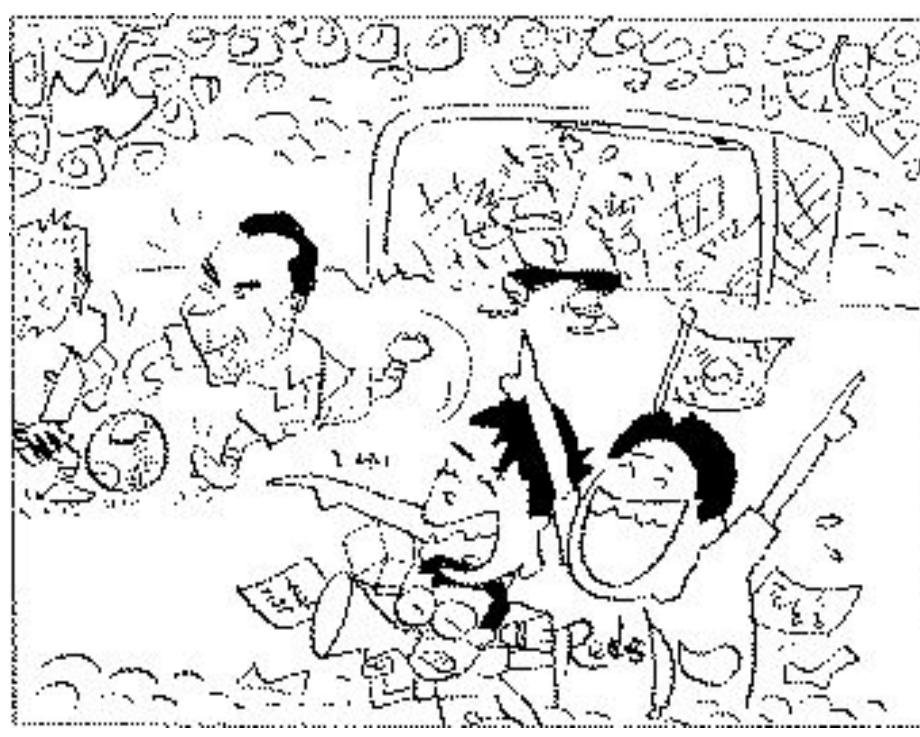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29 >



▲ 지난주 정답

슬리퍼, 종이비행기, 디리미, 깔때기, 부엌칼, 아이스크림, 칫솔, 펜촉, 열대어



(찾) (아) (보) (세) (요) 펜촉, 고추, 우산, 열대어, 셀룰록, 바늘, 우유팩, 종이배, 은행잎

◀ 월드컵 증후군

* 신호등이 레드, 옐로카드로 보이기 시작한다.
 * 다른 차를 앞지르기가 웬지 끄집칙하다. 앞지르기를 했다가는 어디선가 교통경찰이 나와서 오프사이드라고 경고를 줄 것 같다.
 * 다른차가 앞지르면 오프사이드라고 경적을 울린다.
 * 업무 시작 전에는 태극기를 보고 애국기를 부르고 싶어진다.
 * 45분 일하고 15분간 휴식한다.
 * 정해진 점심시간에 인저리 타임을 적용, 커피를 마시고 들어온다.
 * 웬지 앞서 가는 사람을 태클하고 싶어진다.
 * 동료가 아프다고 하면 할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의심해 본다.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지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이신재·광주시 남구 진월동
 이중배·광주시 북구 두암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2일(음 6월 17일 壬寅)



36년 생 상운으로 식구가 줄 수도 있다. 48년 생 새로운 소식은 있으나 서툴지 미라. 60년 생 시기상조니 마지막 더운 조심도 같이 해야. 72년 생 배인 편에 사고가 발생 할 수도. 84년 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37년 생 초기 길은 불편하고 낮설다. 49년 생 앞으로의 불편한 일을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61년 생 길이 절단하고 안보이나 손톱은 트인다. 73년 생 직장의 흐름을 읽어보라. 85년 생 자녀문제가 발생하니 주변을 잘 살펴라.



38년 생 서로 경쟁하듯 나거나 흉하고 길은 적다. 50년 생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進은 있다. 62년 생 득보다는 실이 많고 흉이 발생한다. 74년 생 시비를 짓지는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인내하라.



39년 생 겉으로는 협조가 이루어진 듯하나 결과는 미미하다. 51년 생 미지막 마무리를 잘하면 큰 득은 있다. 63년 생 절대로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75년 생 백사가 불성하니 신중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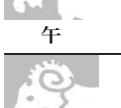
40년 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짐작할 필요가 있다. 52년 생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길이 있다. 64년 생 아는 도끼에 팔등 찍히거나 경기방지하듯이마라. 76년 생 장기간 음지에서 벗어난 기쁨이 다가 올리니.



41년 생 생기가 밟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53년 생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갈피리라. 65년 생 재수는 바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77년 생 주인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리라.



42년 생 세상에 희망의 설계가 있고 협조자가 있다. 54년 생 새로운 사업 구상을 제기 받고 조직이 생긴다. 66년 생 신중하고 긴 압박으로 협력자를 돌아보라. 78년 생 여행을 삼가하고 실천으로 보여줘라.



43년 생 뜻을 펼칠 구상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다. 55년 생 낭설은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처신하라. 67년 생 대문 안과 밖을 살펴보면 손발을 예방한다. 79년 생 가정의 안정이 있고 식구가 느는 길사가 있을 수도 있다.



44년 생 희망은 많고 길은 적으나 변화를 자제하라. 56년 생 부부 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보내라. 68년 생 적은 돈의 소비가 있다. 80년 생 역습을 당하는 형상이나 큰 불편한 일은 막힐 것이다.



45년 생 길사는 적고 흉사는 많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7년 생 규모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면 대손은 없다. 69년 생 자신의 일을 접두하고 뒤틀어보라. 81년 생 원한 뱃чин미운사람이 나타나고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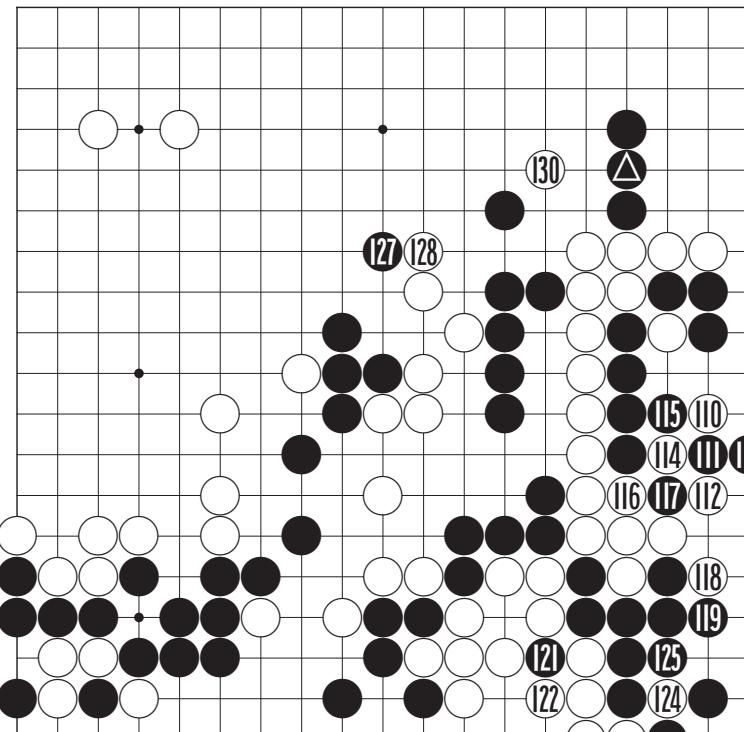


46년 생 고여은 없다. 58년 생 내용으로는 통한 듯 하나 일고의 우려가 있다. 60년 생 의욕적인 추진은 있으나 이로 인해 손해는 없다. 69년 생 자신의 문제를 접두하고 뒤틀어보라. 81년 생 원한 뱃чин미운사람이 나타나고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



47년 생 집나라 지식이 둘어온 형상이나 결과는 허망할 수도 있다. 59년 생 역사지사 태인의 눈과 마음으로 이웃도 살펴보라. 71년 생 금지 서두르면 큰 손해가 온다. 83년 생 기쁨 속에 합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직장비밀대회

2회전 제7보(110~130)

白 기우 준 5단
<광주시교육청>黑 허우석 5단
<광주시청>

흑 ▲가 백 대마를 기필코 잡고야 말겠다는 회심의 일착이었으나 이 수가 우변의 사활을 착각한 실수였음이 끝내 드러났다.

기우준 5단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흑 던져간 110이 흑 대마의 폐부를 짤라간 통렬한 급소였다. 이 수를 당한 이성 117까지는 외길수순으로 천지대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백은 살자는 폐가 많아서 일단 이 점전은 흑의 실패로 보인다. 그러나 흑한 태도 중앙 백 대마를 공격하는 횃감이 많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패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허우석 5단이 이 패를 봤을 수도 있으나 모양 사납게 흑 ▲로 이었을 때는 이 패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들어켜 보면 흑 ▲로는 우변 111에 두어 지켜놓고 나서 전전히 공격하는 것이 백에겐 훨씬 괴롭다.

서로 자체 패를 쓰다이 흑이 미지수로 남아있던 127로 횃감을 쓰자 백도 130으로 돌파를 시도한다. 흑의 응수가 궁금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전남본부

바둑소식

진시영, 오스람코리아배 4연승

신에 진시영 2단이 지난 10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 연승최강전 본선대국에서 백종석 4단과 업정훈 5단을 연파하고 4연승을 거뒀다.

진시영 2단은 3연승을 거둔 윤준상 3단을 주월하며 이번 대회 최다 연승을 기록, 상금 200만원을 손에 넣었다.

진 2단은 김대희 3단을 상대로 5연승에 나선다. 신에 기사들의 연승전 방식으로 치뤄지는 이 대회는 만 25세, 5단 이하 기사들만 출전할 수 있다. 3연승 할 경우 연승 상금 100원, 이후 1승씩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보너스 상금이 주어진다.

<윤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87>

It's been ages since I saw you last!

정말 오랜 만일세

A: It's ages since I saw you last!

B: It really is. How's your business?

A: It's OK. You might as well drop by my office for a while.

B: Actually, I have no time right now. I've got to fly to New York.

A: 오랜 만일세

B: 정말 그렇구만. 잘 있었는가?

A: 잘 지내네. 잠깐 내 사무실에 들려 주지 그런가.

B: 사실은 말야. 난 시간이 없다네. 지금 뉴욕행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

It's ages since I saw you last! : 오랜만이네.

= It's been a long time.

= Long time no see.

You might as well~ : You had better보다 더 완곡한 예의

를 갖춘 표현이다.

fly to~ : 비행기를 타고 ~로 가다.

for a while : 잠시 동안

오하이오 니혼고 <687>

みんな一生懸命がん